

[예술상을 점검한다] - 전통예술

전통예술상 창작활성화에 기여

김기형
고려대 교수

‘2004 올해의 예술상’이 어떤 동기에서 시작되었든, 취지나 방향은 바람직하고 생산적인 것이어서, 예술 분야에 종사하는 개인(혹은 단체)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행사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말고 지속적인 행사로 자리 잡아 전통예술 분야 창작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기 바라는 마음이다.

전통예술상이 갖는 의미

우리는 이른바 ‘문화의 세기’를 살고 있다. 그런데 정작 문화예술의 전승환경은 열악한 편에 속하는 것으로 보인다. 상품 가치, 대중성 여부 등이 문화예술의 가치를 규정하는 주요 잣대로 기능하고 있는 오늘날, 전통예술분야에 종사하는 예술인들이 겪는 어려움은 참으로 남다른 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전통예술의 보존과 확산을 위해 한평생 살아온 예인들이 있는가 하면, 전통예술의 맥을 잇고 나아가 전통의 재창조를 통해 진정한 우리문화를 이룩해 나가고자 하는 젊은 예술인들 또한 적지 않다. 이미 커다란 족적을 남긴 전통예술인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혹은 전통예술의 보존과 재창조를 위해 애쓰는 젊은 예술가들에게 힘과 용기를 불어 넣어주기 위해 제정된 각종 시상제도는 그래서 더욱 돋보이고 의미있는 것이라 하겠다.

전통예술 분야의 대표적인 상으로, 방일영 국악대상, KBS 국악대상, 동리 대상, 대한민국문화예술상,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 등을 꼽을 수 있다. 방일영 국악상은 1994년 ‘국악의 해’를 맞아 제정된 이후 국악 전문분야에 걸쳐 일생동안 몸바치고 탁월

한 업적을 남긴 국악인을 선정하여 매년 11월 경에 시상해 오고 있다.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상금 5000만원이 수여되는 매우 큰 규모의 상이라 하겠다. 작년 제11회 방일영국악대상은 경기민요 예능 보유자인 목계월 명창이 선정되어 수상하였다. 경기민요 예능 보유자로서는 처음으로 이 상을 수상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각별하다고 할 수 있다.

KBS 국악대상은 1993년부터 국악의 각 부문별로 수상자를 선정하여 연말에 수여해 오고 있다. 2004년도에는 가악부문에 문현, 민요부문에 박상옥, 판소리부문에 유영애, 연주관악부문에 강은일, 연주현악부문에 백인영, 연주단체부문에 광주가야금연주단, 작곡 및 지휘부문에 신동일, 출판 및 미디어부문에 윤중강, 특별공로상에 이보형이 각각 수상하였다.

동리국악대상은 신재효의 업적을 기려 제정한 상으로, 업적이 탁월한 판소리 명창을 선정하여 상금 1000만원을 수여한다. 매년 동리 신재효의 탄신일이자 기일인 11월 6일 고창 동리국악당에서 수여된다. 이번 제14회 동리대상은 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심청가> 보유자인 성창순 명창이 수상



올해의 예술상(전통 예술) 우수 선정작품을 수상한 「술기둥」 공연

하였다.

대한민국문화예술상에 전통예술부문이 별도로 설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나, 제36회 대한민국 문화예술상 음악 부문에 한국예술종합학교 김영재 전통예술원장이 수상자로 선정되어 대통령상장과 상금 1000만원을 수상하였다. 장래가 촉망되는 20~30대의 젊은 예술가들을 선정하여 1993년부터 시상해오고 이는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에는 전통예술 부문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다. 2004년 제12회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 전통예술 부문은 원장현류 대금을 갖고 있는 원완철 명인이 수상자로 선정되어, 문화관광부장관상과 상금 500만원을 수상하였다.

이상에서 살펴 본 전통예술분야 예술상은 어느 정도의 연륜을 지니고 시행되어 온 것이다. 그런데 작년에 처음 선보인 ‘올해의 예술상’은 규모나 상금 액수의 측면에서 여타의 예술상을 능가하는 비중있는 행사로 치루어지면서 문화예술계의 주목의

대상이 되었다.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주최하고 복권위원회와 문화관광부가 후원했다는 점에서 뿐만 아니라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었다는 점에서 문화예술계의 주목을 끌기에 충분한 매우 중요한 이슈였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동안 문예진흥원은 주로 지원활동에 주력해 왔는데, 이번에는 단순한 지원을 넘어서서 보다 적극적으로 행사를 기획하고 주도하는 적극성을 보여주었던 것이다.

여기서는 ‘2004 올해의 예술상’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바람직한 예술상이 정립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기로 한다.

‘2004 올해의 예술상’은 크게 세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기초예술 부문에 대한 창작활동 장려, 기초예술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문화예술 참여도 제고, 국가 문화예술 역량 강화가 그것이다. 문화예술계의 한 해 성과를 정리하는 권위 있는 문화예술상 제도를 신설하고 이를 축제형식으로 운영함으로써 예술창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문화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가 지닌 주목할만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행사는 시상과 축제의 형식을 겸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경연대회 방식으로 진행되는 시상 제도는 기량의 우열을 가리고 전문인을 배출하는 것이 대회의 목적이자 궁극적 지향점이다. 그런데 이 사업은 우수작품에 대해 시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우수작품 공연을 통해 축제의 장을 만들어 보려고 했다는 점에서 기존의 시상제도와는 차별성을 보이는 것이다. 물론 행사의 타이틀로 내세운 '축제'라는 이름에 걸맞게 진정 '축제의 장'이 되었는지 반성적으로 되돌아보아야 할 부분이 있긴 하다. 그렇지만 단순히 시상에 끝나지 않고 행사의 방향과 지향가치로 축제를 설정했다는 그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한 것이다.

둘째, 우수한 작품성과에 대해 사후지원 방식을 취하고 있다. 사후지원 제도는 이미 개최(발표)된 작품 가운데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다는 평가를 받은 작품을 선정하여 시상한다는 점에서

「슬기둥」 공연



일종의 인센티브제의 성격을 지닌 제도라 할 수 있다. 처음 시행된 2004년도에는 2003년 9월부터 2004년 8월 사이 국내에서 개최(발표)된 예술작품으로서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도가 높은 우수한 작품을 부문별로 3편씩 선정하여 시상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셋째, 이번 사업의 시상 대상에는 문화예술의 거의 전 분야가 망라되어 있어, 양적 질적 측면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대규모의 행사이다. 문학, 시각예술, 음악, 연극, 무용, 전통, 독립예술 등 7개 분야로 나누어 각 분야별로 3개 작품을 선정하여 시상하였는 바, 영화나 만화 등과 같은 분야가 빠진 했지만, 문화예술 전반을 포괄하여 시상하고 축제를 벌였다는 점에서 문화예술 관계자 나아가 일반 국민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한 비중 있는 행사였다고 할 수 있다. 약 12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었다는 사실이 행사의 규모가 어느 정도였는지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넷째, 전문가 그룹과 일반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상 대상 작품을 선정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각

선정기준을 분명히 하기 위해 선정위원들 간에 합의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 기량, 전통성, 참신성, 창의성 등을 중요한 선정기준으로 삼고자 했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전통성이라고 볼 것인지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뒤따라야 했다. 작품상 수상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하는 것이 마땅히 필요하다고 본다.



분야의 예술단체(예술가)로부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출품 신청을 접수한 후, 예술가, 평론가, 언론인 등 전문가 그룹 및 일반 국민(항수층) 등 다양한 계층의 추천위원단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는 절차를 마련하였다. 아울러 전문가 그룹 및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추천위원단의 1단계 선정과 각 분야별 9인 내외로 구성되는 선정위원회의 2단계 심의, 올해의 예술작품축제 - 시상 운영위원회의 3단계 심의 등 다각적인 심의방식을 도입하여 선정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담보하고자 하였다.

2004 올해의 예술상(전통예술)의 문제점과 과제

그러면 이와 같은 특징을 지니고 진행된 이번 행사 가운데, 전통예술 분야를 논의의 중심으로 삼아 그 의의와 문제점을 점검하고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를 제시해 보기로 한다.

그 동안 전통예술 분야에서 행해진 시상 혹은 축제의 성격을 지닌 행사는 참가자들이 기량을 겨루어 우열을 가리는 경연대회의 방식으로 치루어져 온 것이 전부라 할 수 있다. 경연대회는 대부분 개인 단위로 참여가 이루어지며 대회마다 규모나 상의 무게가 다르지만, 명인 명창의 배출 통로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후지원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시상금 지원 액수의 규모가 그 어떤 대회보다도 크다는 점에서 전통예술 분야 창작활동에 커다란 활력소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선정대상 작품으로 제출된 작품 수는, 선정위원

추천 24종목, 전문추천위원단 추천 34종목, 인터넷 출품작 5종목, 합해서 모두 63종목이었다. 전통예술 분야에는 국악, 무용, 민속연희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선정대상 작품 목록을 검토해 보면 참으로 다양한 장르가 망라되어 있다. 판소리, 창극, 가면극, 전통무용, 기악연주 등은 말할 것도 없고, 강릉 단오제와 완도장보고축제 등과 같은 지역 축제, 범패, 전통격구, 마상무예, 마당놀이, 분청사기명품전 등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몇몇 지역 축제 종목이 선정대상에 오른 이유는 아마도 행사 타이틀에 '축제'라는 말을 사용한 사실과 일정한 연관이 있어 보인다.

선정위원들은 두 차례 모임을 가지며 시상 작품을 선정하였는데, 논의 과정에서 한두 작품이 선정 대상에 추가되기도 하였다. 선정위원들은 선정대상으로 제출된 작품이 과연 전통예술 분야에 적합한 종목인지의 여부를 가리고 외부지원을 받은 작품의 경우엔 선정대상 작품에서 제외하는 등, 시상 작품을 가려내기 위한 작업을 구체적으로 진행한 후, 비밀투표로 수상작품을 선정하였다. 그러면 전통예술 분야를 중심으로 하여 이번 행사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항목별로 점검해 보기로 한다.

범주의 문제 | 전통예술 분야는 여러 세부 분야 가운데 하나로 설정된 것이지만, 그 범주는 상당히 넓다. 국악, 무용, 민속연희 등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악에는 판소리, 민요, 가곡 등의 성악과 가야금, 거문고, 해금, 대금 등의 악기연주 등이 해당되고, 민속연희에는 가면극, 창극, 인형극 등이



올해의 예술상(전통 예술) 우수 선정작품을 수상한 유경화 씨. 수상 작품 '비상을 꿈꾸며'

해당되는 등, 전통예술에는 상당히 다양한 장르가 소속되어 있는 셈이다. 한편 마당극이나 타악퍼포먼스의 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전통예술 분야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아니면 연극이나 여타 분야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애매한 경우도 있다. 이번 선정대상 작품 목록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조흥동의 춤세계」는 처음에는 무용 분야에 포함되었다가 전통예술 분야로 옮겨온 것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연희단거리패의 「초혼」이 연극 분야가 아닌 전통예술 분야에 속해야 하는 이유도 실은 분명하지 않은 것이다. 지역 축제 종목은 창작활동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번 행사 시상 작품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여러 종목이

추천된 것은 행사 타이틀에 '축제'라는 말을 내세웠기 때문일 것이다. 사정이 이러하기 때문에 전통예술의 개념과 범주를 명확히 설정하고 행사의 성격이나 취지 등을 널리 홍보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선정위원 구성의 문제 | 전통예술 분야 선정위원으로 8명이 위촉되었다. 그런데 이들 선정위원을 전공 영역으로 나누어 볼 때, 국악 5명, 민속연희 2명, 무용 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선정위원이 국악 분야에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전통예술 가운데 국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산술적 평균논리를 내세우는 것이 온당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렇다 하더라도 절반이 넘는 선정위원이 특정 분야 전공자들로 구성되었다는 것은 자칫 선정결과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문제적 사안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선정기준의 문제 | 수상작품 선정기준으로 제시된 내용은 크게 두 가지이다. 작품의 예술(문화)적 우수성 및 완성도와 해당 분야 발전에의 기여도와 파급효과가 그것이다. 작품을 통해 발표된 예술작품의 창의성과 수월성(秀越性), 기획·구성·연출 등의 참신성·독창성과 그 예술적 구현성과, 제작진과 참여예술인(단체)의 기량과 수준 등을 고려하여 예술적 우수성 및 완성도를 평가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해당 작품에 대한 수용자(관람객/독자, 평론계, 언론계 등) 만족도 및 해당 분야의 관심도, 해당 분야 발전에의 공헌도 및 파급성 등도 중요한 선정기준으로 삼은 것이다. 이와 같은 선정기준은 모든 분야에 적용된 것으로, 전통예술 분야는 이러한 선정기준 이외에 '전통성'과 '창의성'의 조화를 중요한 평가지표로 삼았다.

선정기준을 제시함에 있어, 심사의 대체적인 방향과 지표만을 보여줄 수 있을 뿐 선정기준의 구체적인 사항을 세세하게 열거하여 보여주기는 어려

공헌도가 높은 작품을 선정하여 시상하는 올해의 예술상 행사는 결국 검증된 공연, 잘하는 그룹(혹은 개인)을 보다 확실하게 지원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본다.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요구되는 일종의 화두가 '선택과 집중'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번 행사도 그러한 맥락에서 시도된 것이라 이해할 수 있다.



운 것이 사실이다. 분야마다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 다를 수 있으며, 보다 구체적인 선정기준을 세우고 적용하는 일은 선정위원들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 작품의 질적 평가는 물론 선정위원 개인의 가치판단에 맡겨야 하겠지만, 선정기준을 분명히 하기 위해 선정위원들 간에 합의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 가령, 전통성, 참신성, 창의성 등을 중요한 선정기준으로 삼고자 했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전통성이라고 볼 것인지 등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뒤따라야 했다는 말이다. 작품상 수상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하는 것이 마땅히 필요하다고 본다.

선정과정의 문제 | 선정위원들은 수상작품 선정을 위해 2차례 모임을 가졌다. 추천작품 63종목 가운데 16종목을 선별해 내고, 이들 작품 가운데에서 최종적으로 시상 작품을 선정하였던 것이다. 이 과정에서 추천작품이 전통예술의 범주에 속하는지 여부를 따지고 추천과정에서 누락된 작품은 없는지 점검하는 등 선정위원들 간에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시상 작품을 선정할 때, 선정위원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비밀투표로 수상작품이 선정되었다. 이처럼 충분한 논의를 갖지 않은 이유는 담합의혹이나 일부 특정 선정위원의 영향력 행사를 배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였다고 한다. 물론 일리 있는 말이다. 그렇지만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선정기준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마련되지 않은 데다, 작품자료, 비디

오, 팸플릿, 개인적으로 본 경험 등을 근거로 삼아 작품을 선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선정위원들 간에 충분한 논의와 토론이 이루어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수상으로 선정된 슬기둥의 공연은 처음에는 추천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그런데 선정위원들이 추천될 만하다고 판단하여 논의과정에서 새로이 추가한 종목인 것이다. 결과적으로 슬기둥은 우수상을 수상하였는데, 자칫했으면 아예 선정 대상에 포함되지도 못했을 뻔했던 것이다. 이는 선정위원들 간의 논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한편 민화의 공연은 잘 알려져 있는 그룹이 아니고, 문화예술계에 끼친 공헌도 등을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수상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지명도가 있는 그룹이나 개인에 대해 높은 점수를 주게 된다면 신진 그룹이나 개인은 기본적으로 불리함을 감수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전통예술 분야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궁극적으로 이번 행사의 목적이나 지향점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보다 본질적인 문제와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축제의 장'의 문제 | 이번 행사에서는 최우수상 1편, 우수상 2편을 선정할 후, 최우수상 수상작품을 공연함으로써 축제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전통예술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작품

은 창극 「옥보고」이며, 슬기동의 「송년콘서트」와 유경화의 「철현금독주회」가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그런데 정작 축제의 장으로 마련된 공간에서는 슬기동의 「송년콘서트」가 공연되었다. 많은 관객이 참여했고 공연은 성공리에 끝났지만, 왜 최우수상 수상작 대신 우수상 수상작품이 공연되었는지 궁금하다. 이러한 문제는 일견 사소해 보인다. 그렇지만 약속은 지키는 것이 좋으며, 그렇지 않을 때에는 그 이유를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



남수정 무용단의 「서기 3004년의 산책 - 옛 집을 만나다」. 이 공연의 철현금과 타악 연주는 우수 선정작품 수상자 유경화 씨가 맡았다.

행사의 커다란 특징 가운데 하나인데, 진정한 '축제의 장'이 되었는가에 대해서도 반성적으로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물론 7개 분야 최우수상 수상작품을 순차적으로 공연(전시)함으로써 다양한 문화예술을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면서 문화예술인들 간의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한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전국민적 기초예술에 대한 인식과 문화예술 참여도 제고'를 목적으로 한 행사이기도 한 만큼, 서울 중심을 벗어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예산상의 문제 등이 있겠지만, 이왕이면 최우수상뿐만 아니라 우수상을 받은 작품을 모두 공연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2004 올해의 예술상'이 오랜 고민과 기획의 결과 마련된 것인지 아니면 다소 즉흥적으로 준비된 행사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 그러나 어떤 동기에서 시작되었든, 그 취지나 방향은 참으로 바람직하고 생산적인 것이어서, 문화예술 분야에 종사하는 개인(혹은 단체)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상당한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전통예술 분야 나아가 문화예술 분야에 '없는 것보다는 그래도 있는 게 낫다'는 식은 아니라는 말이다. 다만 처음 시작된 행사이니 만큼 앞으로 개선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정확히 점검하고 보완해서 이러한 행사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말고 지속적인 행사로 자리 잡아 전통예술 분야 창작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기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

지속적인 행사로 자리잡아 창작활성화에 기여하길

이상에서 '2004 올해의 예술상' 가운데 전통예술 분야를 논의의 중심으로 삼아 그 의의와 문제점을 점검해 보았다. 공헌도가 높은 작품을 선정하여 시상하는 이번 행사는 결국 검증된 공연, 잘하는 그룹(혹은 개인)을 보다 확실하게 지원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본다.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요구되는 일종의 화두가 '선택과 집중'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번 행사도 그러한 맥락에서 시도된 것이라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이미 지명도가 높고 검증된 그룹(혹은 개인)의 경우 상대적으로 탄탄한 활동기반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역량이 있으면서도 충분히 그것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거나 혹은 드러낸다 하더라도 지명도에서 뒤져 불리한 처지에 놓여 있는 신생 그룹(혹은 개인)에 대한 지원 방안이 함께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 새로운 작품 개발 및 기획 작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말이다.

시상과 더불어 축제의 형식을 지향한 것이 이번